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울산 현대가 18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 소속 미드필더 믹스 디스커루드(28)를 임대 영입했다. 울산은 월드컵브레이크 동안 이근호, 홍준호, 에스쿠데로를 합류시킨 데 이어 디스커루드까지 데려오며 전력을 살찌웠다. 사진제공 | 울산 현대

울산, 외국인 '마지막 퍼즐' 맨시티서 디스커루드 임대

美 대표팀서 6골 기록…등록명 '믹스'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울산 현대가 승부수를 던졌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 소속 미드필더 믹스 디스커루드(28)를 영입했다. 울산은 18일 "EPL 맨시티에서 디스커루드를 1년 임대 영입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노르웨이 이중국적을 가진 디스커루드는 노르웨이, 벨기에, 미국, 스웨덴 리그 등에서 뛰다가 올해 1월 맨시티에 입단했다.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뛴 기록은 없다. 2월에 스웨덴 IFK예테보리로 임대됐다가 이번에 울산에 합류했다. 등번호는 42번이다.

디스커루드는 미국 대표로 뛰며 A매치 38경기에서 6골을 기록했다. 2014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월드컵브레이크 동안 강원FC에서 '국가대표급' 공격수 이근호를 데려오는 등 홍준호, 에스쿠데로를 합류시킨 울산은 디스커루드의 합류로 외국인 선수 구성까지 마무리했다.

울산은 "중원에서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고, 기술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라고 소개하며 "이근호, 박주호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원의 '마지막 퍼즐'이다. 울산은 중원 강화를 통해 K리그와 FA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더욱 단단한 스쿼드를 갖추게 됐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디스커루드는 "K리그가 아시아 최고의 리그로 알고 있다. 울산에서 뛰게 돼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등록명은 '믹스'로 정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점유율 축구의 몰락…세계축구는 '역습 시대'

한 달간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2018러시아월드컵이 프랑스의 통산 두 번째 우승과 함께 성대한 막을 내렸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조별리그 A조 개막전부터 프랑스-크로아티아의 결승전까지 64경기 내내 감동과 환희, 눈물의 드라마가 연출됐다. 초록 그라운드에서 쟁쟁한 스타들이 치열하게 부딪혔고, 환상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보는 즐거움을 충분히 선사했다. 전통의 강자들이 일찌감치 짐을 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강호들이 채워가면서 전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3회에 걸쳐 러시아월드컵을 되돌아본다.

점유율 1·2위팀 스페인·독일 부진
월드컵 품은 프랑스…점유율 18위
음바페, '폭발적 스피드' 역습 특화
꾐 국가들도 역습축구로 저력 발휘



월드컵은 세계 축구 흐름을 한눈에 볼 기회다. 막을 내린 2018러시아월드컵에서는 점유율 축구의 실종이 가장 큰 화두였다. 또한, 아시아 국가의 분전도 돋보였다. '세계 최강' 독일을 누른 한국과 16강에 오른 일본 등이 눈에 띄었다. 한국 문선민(왼쪽)이 독일전에서 상대 선수를 제치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카잔(러시아) | 뉴시스



◀ 프랑스 음바페

- 글 싣는 순서 -

① 젊은 피, 러시아를 집어삼키다!
② 힘 못쓴 전통의 강호, 한 시대가 저물다!
③ 사라진 점유율 & 아시아 분전 새로운 패러다임

월드컵은 세계축구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존까지는 점유율 축구가 대세를 이뤘다. 볼을 주도적으로 가져가면서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해 골을 노리는 팀들이 승리를 챙겼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이 대표적인 '점유율 축구' 팀이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 대회에서는 '점유율 축구=승리'라는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다. 빌드업 과정에서 나오는 패스 미스를 노리거나 볼을 가진 상대를 특정 지역으로 몰아넣은 뒤 볼을 빼앗아 롱패스에 이은 역습을 노리는 축구가 대세를 이뤘다. 이는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점유율 1위 스페인(69.2%)은 16강전 탈락, 2위 독일(65.3%)은 월드컵 출전 이래 처음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이들의 몰락과 함께 점유율 축구시대도 종말을 고했다.

2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프랑스는 대표적인 '역습 축구'의 선두주자다. 전략적인 수비 압박으로 미드필더, 수비수들이 볼을 뺏으면 주력 좋은 공격수들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역습에 나서 득점으로 연결했다. 역습 축구에 특화된 킬리안 음바페(19·파리 생제르맹)는 단숨에 세계최고 공격수 반열에 올랐다. 프랑스의 점유율은 49.6%로 참가국 중 18위다. 점유율 집계가 시작된 1966잉글랜드월드컵 이우 우승 팀 중 가장 낮은 점유율이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축구의 선전도 돋보였다. 2014 브라질월드컵 당시에는 한국, 일본, 호주, 이란 등 4개국이 3무9패의 참담한 성적을 남겼다. 16강에는 단 한 팀도 오르지 못했다.

러시아에서는 달랐다. 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5개국 중 호주(1무2패)를 제외한 4개국은 1승씩을 챙겼다. 이번 월드컵에서 아시아 5개국이 거둔 성적은 4승3무9패다. 일본은 아시아국가 중 유일하게 16강에 진출했다. 16강에서 벨기에에 2-3으로 허무한 역전패를 당했지만 우승후보 중 한 팀이었던 벨기에를 패배 직전까지 몰고 가는 등 저력을 선보였다. 한국은 목표로 했던 16강 진출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H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세계 최강 독일을 맞아 한국형 역습축구를 펼치면서 2-0으로 승리를 거두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 경기는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 팬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명승부로 손꼽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통 큰 10대' 음바페, 월드컵 상금 전액 기부

5억7000만원 자선 단체에 쾌척
돌출행동 이미지 씻고 해피엔딩

대회 전부터 '예고했던' 그대로다.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다.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프랑스의 우승에 일조하며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세기의 젊은 피', 킬리안 음바페(20)가 이번 대회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18일(한국 시간) "음바페가 러시아월드컵에서 받은 수당과 상금 등 50만 달러(약 5억7000만원)가 넘는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무상으로 교육하는 스포츠 교육기관에 지원한 것이다.

음바페는 이번 대회에서 4골을 넣으며 프랑스의 미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리오넬 메시가 버티고 있는 아르헨티나와의 16강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4-3 승리를 이끌었다. 또 크로아티아와의 결승전에서 쐐기골을 기록했다.

음바페는 1998년 12월 20일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19세에 불과하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10대가 골을 넣은 건 1958스웨덴월드컵의 펠레(브라질) 이후 60년 만이다.

'제2의 펠레'로 특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음바페는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자신의 출전 수당 등 이번 대회에서 얻은 부수입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혀 전 세계 축구팬들의 찬사를 받았는데, '레퀴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약속을 지키며 또 한번 축구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만 스무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탁월한 경기력을 발휘하고도 게임 도중 돌출 행동을 하며 종종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했던 음바페는 이번 자선 단체 기부로 자신의 이름을 축구팬들에게 아로새기며 '해피 엔딩'을 마무리했다.

현재 유럽 주요 클럽의 레이더망에 들었지만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 남을 것이다"고 한 밝힌 상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민재야, 네가 잘해서 흥민이 군면제 시켜줘"

〈김민재〉 〈손흥민〉

전북 최강희 감독 '뼈 있는 농담'

전북 현대의 김민재(22)는 국내 최고의 중앙수비수로 평가받는다. 비록 불의의 부상으로 인해 2018러시아월드컵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김학범(58) 감독이 맡고 있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는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월드컵은 전 세계 축구선수들이 뛰고 싶은 '꿈의 무대'지만, 군 복무를 해결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아시안게임이 실속 있는 무대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 시 선수에게는 병역 특례가 주어진다.

김민재는 K리그1 최고의 중앙수비수답게 무난히 명단에 포함됐다. 전북에서 김민재를 지도하고 있는 최강희(59) 감독은 "그 연령대에서 김민재 정도의 기량을 가진 수비수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실력을 인정했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김민재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에이스'인 손흥민(26)의 병역 혜택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23세 이하의 선수 17명 이외에 연령과 상관없는 3명의 와일드 카드를 선발할 수 있다. 아직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손흥민은 와일드 카드로 대표팀에 합류했다.



비슷한 나이대 최고 수비수로 꼽히는 전북 김민재가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명단에 포함됐다. 오른쪽은 그의 스승인 전북 최강희 감독. 스포츠동아 DB

최 감독은 "손흥민이 금메달을 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 아닌가. 모든 국민들이 손흥민의 군 면제를 바라고 있더라. 그 때문이라도 금메달을 따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은 (김)민재에게 '너는 손흥민 때문에 아시안게임 가는 거야. 손흥민 몸값 천억 만들어야 하니까 잘하라'라고 말했더니 민재가 웃더라"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손흥민 뿐만 아니라 김민재에게도 더없이 중요한 기회인 아시안게임, 둘은 모두 웃을 수 있을까. 정지욱 기자